

#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관한 연구

## Study of Parental Reactions to a Child's Negative Emotions

정명자 · 임유경 · 김동례\*

광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전남보육정보센터

Chung, Myoung Ja · Lim, You Kyoung · Kim, Dong Rye\*

Dep.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wangshin University

Jeonnam education information center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the father's and mother's reaction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among the children's variables, parent's variables, and parent's reactions. The subjects selected were 183 mothers and 183 fathers with children aged three to five-years-old, from a childcare center and kindergarten in Kwang-ju. Parental emotion-related practices regarding children's negative emotions were assessed with an adaptation of the CCNES(Fabes et al, 1990) that was modified by Kim Hee-Jung(1994). Descriptive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used for data analysis by using the SPSS 15.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athers and mothers used more positive reactions than negative reactions when their children showed negative emotions. The mother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fathers on encouragement of expression, punitive, and distress reactions. Second, the children's age and gender, parent's age, level of education and income were negatively and positively correlated to the father's and mother's reaction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Keywords:** child's negative emotion, mother's reaction, father reaction

### I. 서론

유아들은 생의 초기 양육과정을 통해 끊임없는 정서적 자극을 제공받으며 그 안에서 타고난 정서적 반응들을 표출하고, 사회적 경험의 폭이 넓어지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기본적인 인간의 정서를 인식하고 타인과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An, 2005). 이러한 유아시기의 정서경험은 정서발달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이는 정서능력이 학령전기에 습득되고 굳어지기 때문이다(Denham *et al.*, 1997). 연구결과를 통해 유아기의 정서능력은 미래의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며(Salovey & Sluyter, 1997; Shields *et*

*al.*, 2001), 만일 유아가 정서능력을 늦게 습득하면 사회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분열된 행동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드러났다(Hubbard & Coie, 1994). 뿐만 아니라, 뇌 과학 분야의 혁신적인 발달로 정서와 인지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연구결과(Damasio, 1994; Kim에서 재인용, 2005)로 밝혀졌고, 개인이 의미있는 선택을 하거나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 정서가 강력하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 위기에 대한 일차적인 대응은 사고와 이성이 아닌 감정과 정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제기되면서, 정서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과거 20세기까지 IQ적인 능력이 생존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면,

\* corresponding author: Kim, Don Rye  
Tel: 061-285-5455 Fax: 061-285-5452  
Email: kdr2210@hanmail.net

21세기 사회에서는 EQ적인 능력이 생존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Mun, 2011).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 정서에 대한 개념 정의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정서의 특성상 연구자마다 정서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서가 주관적·생물학적·목적적·사회적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Reeve, 2001). 일례로 정서의 주관적 측면을 살펴보면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동은 아무런 정서를 느끼지 못하는데 반해, 다른 아동은 화를 내거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Kim, 2005). 이러한 정서의 특성으로 인해 연구자마다 분분한 정서에 대한 용어를 Kleinginna와 Kleinginna(1981)가 통합하여 “정서란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신경 호르몬계의 개입을 받아 나타나며 첫째 각성이나 쾌·불쾌의 느낌 같은 정의적 경험을 일으킬 수 있고, 둘째 정서와 관련된 지각, 평가 및 분류와 같은 인지과정을 유발할 수 있고, 셋째 자극적인 조건에 대한 광범위한 생리적 조절을 유발할 수 있으며, 넷째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표현적·목표 지향적·적응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정서를 인간의 제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관점과, 정서적인 능력이 미래의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필수적인 요인임이 강조되면서, 유아의 정서능력과 발달에서 있어서 부모-자녀 간에 발생하는 정서적 사회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정서 사회화란 양육자 또는 성인이 정서표현을 통해 아동에게 다양한 정서에 대한 모델링을 제공하고, 아동과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Denham *et al.*, 1994).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는 유아와 생애 최초로 정서적 경험을 나누는 대상이며 유아가 정서에 대해 알아가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Lewis & Saarni, 1985). 가정에서 부모의 정서표현 방식을 관찰한 유아는 특정한 정서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알게 되며(Denham *et al.*, 1994; Eisenberg *et al.*, 1998), 유아 자신이 표현하는 정서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경험하면서 자신의 정서표현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학습하게 된다(Dunn *et al.*, 1991). 이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정서를 더 잘 경험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다양한 정서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표정, 음성, 자세 및 움직임에 흉내내서 정서가 서로 비슷해지는

정서적 전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모방이라는 기제를 통해서(Halberstadt *et al.*, 1995) 부모의 정서표현과 반응은 유아의 정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일례로 긍정적인 정서인 행복하거나 기쁜 어머니의 얼굴표정을 주로 본 영아는 어머니의 표정을 모방해서 자신도 이런 표정을 짓게 되는(Haviland & Lelwica, 1987) 반면, 우울중에 걸린 어머니의 슬픈 표정을 주로 본 영아는 자신도 이런 슬픈 표정을 모방하게(Pickens & Field, 1993) 된다.

유아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한다. 유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사건이 조화롭게 일치되면 기쁨, 행복함 혹은 즐거움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지만 반대로 자신의 목표와 사건이 조화되지 못하고 목표가 좌절될 때 슬픔, 분노, 두려움, 혐오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Saarni *et al.*, 1998).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기쁨, 행복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보다 슬픔, 두려움, 특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낼 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Dunn *et al.*, 1991; Park, 2005). 흔히 긍정적인 정서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정서는 최소화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Tomkins, 1963)이기 때문이다. 이런 성향 때문에 부모는 종종 부정적인 통제전략을 사용해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반응하도록 동기화되며,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좋지 않게 여기는 부모는 자녀에게 벌을 주거나 부정적 정서를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그러한 표현을 빨리 그만두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Gottman, 1997). 반면 자신의 정서와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며 이를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부모들은 아동의 정서표현에 비교적 지지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Eisenberg *et al.*, 1998; Gottman *et al.*, 1997).

최근 정서를 바라보는 관점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부정적 정서가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었으며(Eisenberg *et al.*, 1996),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표현은 정서사회화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기(Fabes *et al.*, 2001) 때문에,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반응보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Eisenberg *et al.*, 1992; Fabes *et al.*, 2001). 또한 부모가 자녀의 정서에 반응하는 방법은 양육방식의 일부로 볼 수 있는데, 부모의 일반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정서적 반응을 잘 예측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Gottman *et al.*, 1996),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양식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이 연구들은 아동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사회화가 전반적인 양육방식과 구분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반응하며 적절히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은 아동의 심리적 건강 및 사회적 능력과 관련되는 요인이라는 것에 주목하였다(Jung, 2006).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란 자녀가 실망, 분노,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을 때 부모가 나타내는 반응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부모가 비지지적인 반응을 보일 때 자녀의 발달에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Eisenberg & Fabes, 1994; Eisenberg *et al.*, 1996), 부모가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 때 아동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감정적인 흥분을 조절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정서적인 자극에 주의를 집중하는 등 정서적 유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Eisenberg *et al.*, 1998; Gottman *et al.*, 1997).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양육자가 이를 무시하려 한다면 아동은 거부당했다고 느끼며 화가 나게 되고 화난 감정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표출되어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처할 수 있다(Bradley, 2000). 그리고 부모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심하게 통제하거나 처벌하는 반응은 아동의 행동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유능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Denham, & Grout, 1992; Denham *et al.*, 1997).

그러므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부모와 자녀의 특성에 따라 그러한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맥락주의적 입장에서 Belsky(1984)는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적, 기질적 요인을 제시하였으며, 정서적 사회화에서 아동·부모·사회/문화적 특성들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한 Eisenberg와 동료들은 아동의 성, 연령, 가정의 SES 등을 부모행동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들로 제시하였다(Eisenberg *et al.*, 1998).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태도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부모와 자녀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어머니의 반응간에 차이는 어떠한가?
2. 유아변인, 부모변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 반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2-1. 유아변인, 부모변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2-2. 유아변인, 부모변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3곳과 유치원 1곳에 등원 중인 만3세에서 만5세 자녀를 둔 220쌍의 부모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선정된 기관은 부모의 SES 계층을 고려하여 유층표집하였다.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와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결과, 부모 186쌍이 연구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연구대상의 배경변인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초혼의 만혼화 현상으로 인해 부모연령의 편차를 고려하여 35세를 기준으로 연령을 구분하였다.

### 2. 연구도구

#### 1)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 척도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Fabes, Eisenberg와 Bernzweig(1990)의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를 번안 수정한 Kim(1994)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12가지 상황과 그에 따른 각각 6가지의 부모 반응 범주로 구성되어 총 7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은 크게 지지적인 반응(감정표현의 격려/ 정서중심적 반응/ 문제중심적 반응)과 비지지적인 반응(최소화 반응/ 처벌적 반응/ 스트레스적 반응)으로 구분된 하위 6개 반응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척도의 구성내용은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Table 1〉 Descriptives of subjects

Categories	Sub-categories	Father	Mother
Parental Age	20 - 25	36(19.4)	74(40.0)
	More than 26	150(80.6)	112(60.0)
Parental Level of Education	College	63(33.8)	38(20.6)
	University	93(50.0)	54(28.8)
	Graduate school	30(16.3)	94(50.6)
Income	Less than ₩2,000,000	33(17.5)	
	₩2,010,000-3,000,000	52(28.1)	
	₩3,010,000-4,000,000	44(23.8)	
	More than ₩4,010,000	57(30.6)	
Child's Gender	Boy	100(53.8)	
	Girl	86(46.2)	
Child's Age	3	45(24.4)	
	4	67(35.6)	
	5	74(16.3)	
Number of Children	1	113(60.6)	
	More than 2	73(39.4)	

〈Table 2〉 Scale of parental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Subcategory	Item	Number
Positive Reaction	Encouragement of Expression	5,11,17,20,30,35,42,43,49,57,66,68	12
	Emotion-focused	6,8,16,23,25,31,38,48,54,58,65,69	12
	Problem-focused	3,10,15,24,26,36,37,44,52,59,64,67	12
Negative Reaction	Minimized	4,9,14,21,27,32,40,46,51,60,61,72	12
	Punitive	1,12,18,19,28,34,41,47,53,56,63,71	12
	Distress	2,7*,13,22,29,33,39*,45*,50,55*,62,70	12

(\*: reverse coding)

6가지 부모 반응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지적 반응유형인 ‘감정표현의 격려 반응’은 유아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모가 격려해주는 반응 유형이며, ‘정서 중심적 반응’은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유아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위로해주는 반응유형이고, ‘문제중심적 반응’은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느끼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격려해주는 반응유형이다. 비지지적 반응유형인 ‘최소화 반응’은 유아가 느끼고 있는 부정적 정서나 유아가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낮추거나 최소화시키려는 반응

유형이고, ‘차별적 반응’은 유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벌을 주거나 꾸짖는 반응유형이며, ‘스트레스 반응’은 유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부모가 느끼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그대로 드러내는 반응 유형이다.

본 척도의 반응양식은 5점 Likert식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순으로 평정되는데, 6개 반응 문항의 총점은 12점에서 60점의 점수 분포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점수가 가지는 반응유형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  $\alpha$ 는 어머니 반응은 .79에서 .89의 범위였으며, 아버지 반응은 .74에서 .85의 범위였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SES 계층을 고려하여 광주시에 소재한 유치원 1곳과 어린이집 3곳을 유층표집하여, 그 기관에 재원중인 만3세에서 만5세 자녀의 부모 220쌍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2011년 8월 16일에서 8월 19일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전화로 사전 동의를 구한 후, 본 연구자가 기관에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문지는 가정통신문과 함께 각 가정으로 전달되어졌다. 본 연구자가 기관에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8월 26일에서 30일에 걸쳐 기관을 재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총 440부를 배부하여 380부(86.4%)를 회수하였으나, 응답이 누락되거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응답이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372부(186쌍)의 설문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양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유아·부모변인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갖는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적 통계분석을 사용하였고,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양식의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계를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따라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양식의 차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 반응양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에서 아버지는 지지적 반응( $M=128.23$ ,  $SD=13.31$ ) 점수가 비지지적 반응( $M=103.21$ ,  $SD=13.62$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 또한 지지적 반응( $M=128.44$ ,  $SD=11.98$ )이 비지지적 반응( $M=101.70$ ,  $SD=12.99$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표현되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지지적인 반응을 더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지지적 반응양식에서 어머니( $M=128.44$ ,  $SD=11.98$ )는 아버지( $M=128.23$ ,  $SD=13.31$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t=.16$ ,  $p>.05$ ). 지지적 반응의 하위영역인 ‘감정표현 격려반응’에서 어머니( $M=41.69$ ,  $SD=7.20$ )가 아버지( $M=39.74$ ,

(Table 3) Mean Difference of Father's and Mother's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N=186

Parent		Father	Mother	t-value
Emotion reaction		M(SD)	M(SD)	
Positive Reaction	Encouragement of Expression	39.74(6.58)	41.69(7.20)	2.38*
	Emotion-focused	44.13(6.20)	43.08(6.32)	-1.76
	Problem-focused	44.35(5.77)	43.66(6.96)	-1.23
Total		128.23(13.31)	128.44(11.98)	.16
Negative Reaction	Minimized	36.89(5.36)	36.97(5.94)	.14
	Punitive	35.28(7.31)	31.51(6.63)	-4.50***
	Distress	31.04(6.07)	33.22(5.49)	3.64***
Total		103.21(13.62)	101.70(12.99)	-1.05

\* $p<.05$ , \*\*\* $p<.001$

$SD=6.58$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38, p<.05$ ). 이는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보일 때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는 자녀의 그 감정을 표현하고 확인하며 이를 격려하는 반응양식을 더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서중심 반응’( $t=-1.76, p>.05$ )과 ‘문제중심 반응’( $t=-1.23, p>.05$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전체 비지지적 반응양식에서는 어머니( $M=101.70, SD=12.99$ )는 아버지( $M=103.21, SD=13.62$ )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1.05, p>.05$ ). 비지지적 반응의 하위영역인 처벌적 반응에서 아버지( $M=35.28, SD=7.31$ )가 어머니( $M=31.51, SD=6.63$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4.50, p<.001$ ).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반응’에서는 어머니( $M=33.22, SD=5.49$ )가 아버지( $M=31.04, SD=6.07$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t=3.64, p<.001$ ).

그러나 ‘최소화 반응’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14, p>.05$ ).

## 2. 유아부모변인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어머니의 반응간의 관계

### 1) 유아·부모변인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간의 관계

유아·부모변인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

의 반응방식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 변인(자녀수, 유아의 성, 유아연령), 부모변인(부연령, 부학력, 가구소득)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6가지 반응방식간의 상관관계를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녀수와 ‘감정표현격려반응’( $r=-.41, p<.001$ )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성별은 ‘감정표현격려반응’( $r=.29, p<.001$ )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처벌적 반응’( $r=-.20, p<.01$ )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연령에서는 ‘문제중심반응’( $r=.32, p<.001$ ), ‘처벌적 반응’( $r=.19, p<.05$ )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스트레스 반응’( $r=-.22, p<.01$ )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는 자녀의 수가 적고, 여아일수록 감정을 격려하는 반응을 하는 경향이 더 크게 하며, 유아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주로 문제중심 반응을 하고, 또한 남아의 정서적 반응과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처벌적인 반응을 더 많이 하며, 유아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스트레스 반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변인의 경우 부학력은 ‘최소화반응’( $r=-.26, p<.001$ )과 ‘처벌적 반응’( $r=-.27, p<.001$ )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소득은 ‘문제중심반응’( $r=.26, p<.001$ )과 정적 상관관계를, ‘처벌적 반응’( $r=-.45, p<.001$ )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감정을 최소화하여 반응하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처벌적 반응이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문제중심 반응을 더 많이하는 반

<Table 4> Correlations among Child's Variables, Parental Variables, and Father's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Child's Variables			Parental Variables		
		Numbers	Genders	Ages	Ages	Level of Education	SES
Positive Reaction	Encouragement of Expression	-.41***	-.29***	.02	-.06	.02	.14
	Emotion-focused	-.01	-.04	.08	-.08	.07	.01
	Problem-focused	.07	.01	.32***	.03	.10	.26***
Negative Reaction	Minimized	.04	.13	.02	-.01	-.26***	-.05
	Punitive	.001	.20**	.19*	.02	-.27***	-.45***
	Disstress	.03	.06	.22**	-.05	.01	-.14

\*  $p<.05$ , \*\*  $p<.01$ , \*\*\*  $p<.001$

편 처벌적 반응은 덜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유아 · 부모변인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간의 관계

유아 부모변인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 변인(자녀수, 유아의 성, 유아연령), 부모변인(모연령, 모학력, 가구소득)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6가지 반응방식간의 상관관계를 분석결과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녀수와 ‘감정표현격려반응’( $r=-.48, p<.001$ ), ‘정서중심 반응’( $r=-.20, p<.01$ )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성별은 ‘처벌적 반응’( $r=.23, p<.01$ )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리고 유아의 연령은 ‘감정표현격려반응’( $r=-.20, p<.01$ ), ‘정서중심 반응’( $r=-.44, p<.001$ )과 부적 상관관계를, ‘문제중심 반응’( $r=.48, p<.001$ ), ‘최소화 반응’( $r=.16, p<.05$ )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자녀수가 적거나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는 자녀의 감정표현을 격려하고 정서중심의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감정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중심의 반응과 부정적 감정을 최소화시키는 반응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보다 남아에게 보다 더 처벌적인 반응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변인의 경우 모연령은 ‘스트레스 반응’( $r=-.21, p<.01$ )과 부적 상관관계를, 모학력은 ‘문제중심반응’( $r=-.21, p<.01$ )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스트레스 반응’( $r=-.19, p<.05$ )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더 많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문제를 해결하는 반응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어머니의 연령이 어리거나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스트레스 반응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양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유아와 부모변인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양식과 갖는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문제별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양식의 차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간 반응양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지지적

<Table 5> Correlations among Child's Variables, Parental Variables, and Mother's Reactions to Child's Negative Emotions

		Child's Variables			Parental Variables		
		Numbers	Genders	Ages	Ages	Level of Education	SES
Positive Reaction	Encouragement of Expression	-.48***	.07	-.20**	.10	.11	.09
	Emotion-focused	-.20**	.04	-.44***	.07	.02	.02
	Problem-focused	.09	.14	.48***	.10	.21**	.28***
Negative Reaction	Minimized	.01	.06	.16*	-.07	-.12	-.08
	Punitive	.01	.23**	.07	-.09	-.05	-.11
	Disstress	.02	.07	-.08	-.21**	-.08	-.19*

\*  $p<.05$ , \*\*  $p<.01$ , \*\*\*  $p<.001$

반응이 비지지적 반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어머니가 지지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라고 밝힌 Han & Sun(2004)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이렇게 어머니의 반응양식 뿐 아니라 아버지의 반응양식도 지지적이라는 결과에 대해, 무관심을 아버지의 덕목으로 삼았던 과거에 비해 근래에는 감정표현을 잘하고 반응을 보이는 아버지 상(象)에 보다 큰 가치를 두기 때문일 것이라는 Lee(2007)의 주장과,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로 인해 21세기의 아버지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정서적·표현적 역할을 수행하고,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양육자로서의 아버지로 변화하고 있음을 제시한 Lee(2010)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아동관의 변화와 더불어 소자녀 보편화의 영향으로 자녀의 많은 부분을 존중하고 수용해주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감정표현격려 반응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처벌적 반응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과거 사회에서 애정 및 감정문제를 담당했던 어머니의 역할과, 궁극적인 훈육 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아버지의 역할(Parson & Bales, 1995)에 대한 이미지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에서 아버지 보다 어머니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만5세 유아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스트레스 반응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와 일치한다(Lee *et al.*, 2007). 스트레스 반응은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표현으로 인해 부모가 느끼는 불안이나 분노 등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Jung(2006)에 의하면 어머니의 우울정도가 높거나, 남아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더 높다고 하였다. 이렇듯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이 더 높은 이유는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어머니에게 양육과 관련한 과중한 일이 더 많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사료된다.

## 2. 유아부모변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의 반응간의 관계

유아변인, 부모변인, 그리고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

한 어머니의 반응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 유아변인인 자녀수, 유아성별, 유아연령, 그리고 모변인인 어머니 학력, 연령, 가구소득에서 모두 유의한 관계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유아변인인 자녀수, 유아연령, 유아성별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수와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서, 자녀수가 증가하면 어머니는 감정표현반응과 정서중심 반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어머니의 육아스트레스가 높아져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Song, 2006)와 유사하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남아일수록 처벌적 반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결과는 여아보다 남아에게 부적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며(Song, 2006), 어머니가 아들은 좀 더 통제적으로 대하고 딸은 좀 더 수용적으로 대한다는 선행연구(Kim, 2008; Cervantes & Callanan, 1998)와 일치한다. 이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신체적 활동력과 행동반경이 크기 때문에, 행동을 통제하려는 한 방법으로 처벌적 반응이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의 연령이 증가하면 어머니의 감정표현반응과 정서중심반응은 줄어들지만, 문제중심 반응과 최소화 반응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Lee(2007)의 연구에서는 유아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고 제시되어, 본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감정표현반응과 정서중심반응이 줄어든 것은, 보통 유아는 연령이 증가하면 부정적 정서표현은 감소하며 부정적 정서표현의 강도가 온건하게 변화하기 시작하므로(Kim & Lee, 2004), 어린 연령인 만3세에 비해 어머니의 감정표현 반응과 정서중심 반응의 강도가 더 약해졌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에 반해 문제중심 반응과 최소화 반응이 유아의 연령에 따라 증가한 까닭은 유아가 앞으로 형식적인 교육기관의 규칙을 잘 따르고 잘 적응해 나가게 하는 전략으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반응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부모관련변인인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그리고 가구소득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어머니 연령이 어릴수록 스트레스 반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나이가 적을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자녀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되고, 그로 인



한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어(Jung, 2007) 이런 부담감이 어머니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 그대로 전이 되기 때문에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 학력이 높아질수록 문제 중심 반응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이 부정적 훈육행동의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Bradly & Corwyn, 2002)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처벌적 반응과 스트레스 반응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ecas(1976)는 사회계층은 신체적인 벌의 사용, 명령의 사용, 아동의 외적인 행동에 기초한 훈육방법을 강조하는 행동과 부적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해, 경제적인 어려움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부적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Bradly & Corwyn, 2002; Bugental & Happaney, 2004), 지속적인 경제 문제와 그에 따른 여러 스트레스에 직면해서 저소득층 부모는 다른 계층의 부모보다 자녀의 사회정서적 요구에 관심과 반응을 덜 보이며 자녀의 복종을 얻어내기 위해 처벌과 강요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Alvy, 1988; Conger *et al.*, 1984).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방식은 유아의 정서 뿐 아니라 제반발달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유아의 성, 연령, 기질 및 부모의 연령, 학력, 가구소득에 따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었다. 그럼으로, 부모들에게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방식이 유아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시킬 뿐 아니라, 현장에서는 유아의 특성과 부모의 특성에 따라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짐을 인식하여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유아의 정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유아의 부정적 정서, 어머니의 반응, 아버지의 반응

## REFERNECES

- Alvy, K. T. (1988). *Parenting programs for black parents*. In Bond, L. A., & Wagner, B. M. (Eds.), *Families in transition: Primary prevention Programs that work*. 28-30 Newbury Park. CA: Sage.
- An, R. R.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individual variables, mothers' emotionality and the children's emotional development, social competence*. Ewha Woman's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Casey, R. (1993). Children's emotional experience: Relations among expression, self-report, and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19-129.
- Bradley, S. J. (2000). *Affect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NY: Guilford press.
- Bradly, R., & Corwyn, R.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371-399.
- Bugental, D. B., & Happaney, J.(2004). Predicting infant maltreatment in low-income families: the interactive effects of maternal attributions and child status at birth. *Developmental Psychology*, 40(2), 234-243.
- Cervantes, C. A., & Callanan, M. A.(1998). Labels and explanations in mother-child emotion talk: age and gender differenti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1), 88-98.
- Conger, R. D., McCarty, J. A., Yang, R.K. Lahey, B., & Kropp, J. P. (1984). Perception of child, child-rearing values, and emotional distress as mediating links between environmental stressors and observe4d matern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6), 2234-2247.
- Denham, S. A., & Grout, L. (1992).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ping: Relations with preschoo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8, 73-101.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 Developmental Psychology*, 30, 928-936.
- Denham, S. A., Mitchell-copeland, J., Strandberg, K., Auerbach, S., & Blair, K. (1997).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Motivation and Emotion*, 21, 65-86.
- Dunn, J., Brown, J.,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48-455.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Eisenberg, N., Fabes, R. A., Carlo, G., & Karbon, M. (1992). Emotional responsibility to others: Behavioral correlates and socialization antecedents. *New directions in child Development*, 55, 57-73.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 Fabes, R. A., Leonard, S. A., Kupanoff, K., & Martin, C. L. (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3), 907-920.
- Fabes, R. A., Eisenberg, N., Bernzweig, J. (1990).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Procedure and Scoring*. Tempe: Arizona State University.
- Fabes, R. A., Eisenberg, N., Karbon, M., Bernzweig, J., Speer, A. L., & Carlo, G. (1994). Socialization of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and prosocial behavior: Relations with mothers' perceptions of children's emotional reactiv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0, 44-55.
- Gecas, V. (1976). *The Socialisation and Child Care Roles. Role Structure and Analysis of the Family*. NY: Russel Sage Foundation.
- Gottman, J. (1997). *The heart of Parenting: How to Raise an Emotionally Intelligent Child*. NY: Simon and Schuster.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243-268.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7).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s emotionally*. Mahwa,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Han, Y. M., & Sun, K. H. (2004). A Study on the Mothers' Reaction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Journal of th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42(1). 197-206.
- Halberstadt, A., Cassidy, J., Stifer, C., Parke, R., & Fox, N.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1), 93-103.
- Haviland, J. M., & Lelwica, M. (1987). The induced affect response: 10-week-old infants' responses to three emotion express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97-104.
- Hong, K. O. (1994). *Relationships between kindergarteners' patterns of attachment and their temperament and their mothers' parenting behavior*. Korea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Hubbard, J. A., & Coie (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Merrill-Palmer Quarterly*, 40(1), 1-20.
- Jung, A. N. (2007). *Parenting stress of preschool children's mothers*. Kyungwon University Master's Dissertation.
- Jung, Y. J. (2006). Correlates of Mothers' Reactions

-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11), 23-34.
- Kim, J. H., & Lee, S. H.(2004). Emotional Behavior in Preschoolers' Peer Conflic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4), 29-43.
- Kim, S. H.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Receptive Attitude toward Child Emotional Expression and Children's Self-Esteem*.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s Dissertation.
- Kim, Y. M. (2005). *뇌를 통해 본 아동의 정서이해*. 서울: 학지사.
- Kleinginna, R. R. & Kleinginna, A.M. (1981). A categorized list of emotion definitions, with suggestions for a consensual definition. *Motivation and Emotion*, 3, 345-379.
- Lee. J. S., & Jung. O. P. (2002).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Relationships with Parental Attitudes. *Journal of Child Studies*, 23(1), 17-35.
- Lee. K. I .(2007). A comparison of reaction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Journal of th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3), 455-463.
- Lee. K. L., Choi, I. S., & Sung, M. Y. (2007). The Relation of Parents' Emotion Socialization to the Development of Emotion in Their Young Children. *Journal of Child Studies*, 28(3), 187-199.
- Lee. Y. H.(2010). The Difference between Mother's with Father's Emotional Socialization to Child.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65, 1-25
- Lewis, M., & Saarni, C.(1985). Culture and emotions. In Levis, M.,& Saarni, C. (Eds.),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102-135. NY: Plenum Press.
- McGillicuddy-De Lisi, A. V.(1992).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Sigel, I. E., McGillicuddy-De Lisi, A. V., & Goodnow, J. J.(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Hillsdale, 101-103. NJ: Erlbaum.
- Mun, Y. R.(2011). *문용린 교수의 정서지능 강의*. 서울: 북스넷.
- Park. J. H. (2005). *Parents reaction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social adjustment*. Sookmyung University Master's Dissertation.
- Parson, T., & Bales, R. F.(199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oe, Illinois: Free Press.
- Pickens, J., & Field, T. (1993). Facial expressivity in infants of depressed m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986-988.
- Salovey, P., & Sluyter, D. J.(1997).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NY: Basic Books.
- Saarni, C., Mumme, D. L., & Campos, J. J .(1998). Emotional developmnet: Action,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In N. Eisenberg(Ed.), W. Damon(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5th ed.) 237-309. NY: Wiley.
- Shields, A., Dickstein, S., Seifer, R., Givsti, L., Magee, K. D., & Spritz, B. (2001). Emotional competence and Early School Adjustment: A study of preschoolers at risk.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1), 73-96.
- Song. H. N. (2006). The Influences of Family Demographics and Children's Emotional Reactions on the Emotional Expressiveness of Korean Par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1), 75-85.
- Tomkins, S. S.(1963). *Affect, imagery, consciousness: Vol. 2, Negative affects*. NY: Springer.
- Okagaki, L., & Divecha, D. J. (1993). Development of parental beliefs. In Luster, T., & Okagaki, L.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55-87. Hillsdale, NJ: Erlbaum.

| 접수일 : 2011. 11. 09.  
 | 수정완료일 : 2011. 12. 05.  
 | 게재확정일 : 2011. 12. 11.